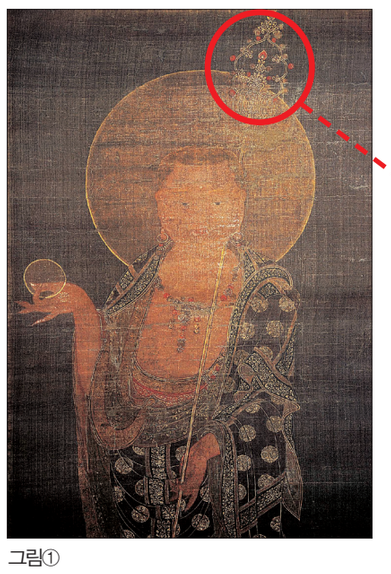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⑲ 스미소니언 〈지장보살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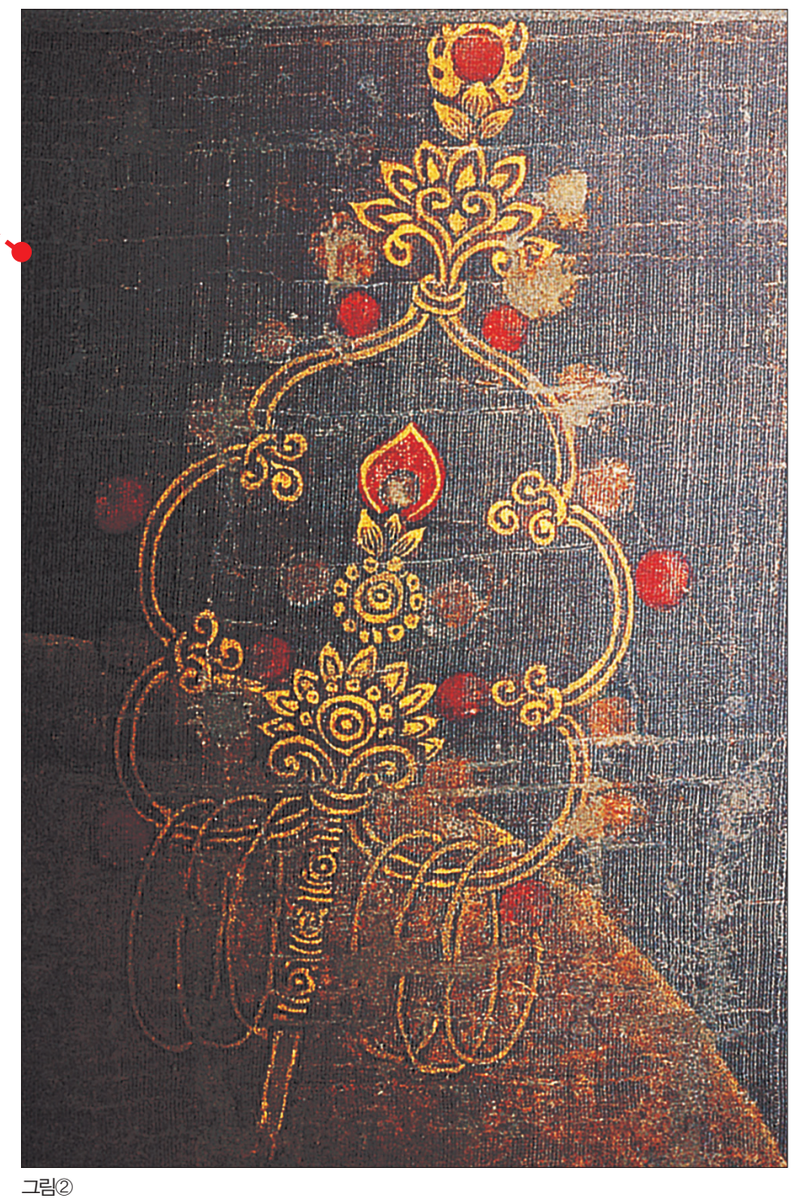
▶ 한줄 요약
지장보살은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보살 중 유일하게 삭발을 하고 있다. 이는 "지장보살은 성문의 모습으로 나툰다"는 경전에 근거한 것으로, 중생의 눈높이에서 제도하기 위해 선택한 방편이다.

지장보살, 삭발한 이유 '방편교화' 때문

지장보살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많은 보살 중, 유일하게 머리를 깎은 모습이다. 머리카락을 밀어서 파스라니 두피가 드러난 삭발의 형상이다. 보통 보살의 조형은 화려하게 장엄된다. 특히 머리 장엄은 해당 보살의 역할 및 상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상이다. '보살'이라는 존격은 '세상을 장엄하는 아름다고 고결한 에너지' 그 자체이기에, 그것을 보관과 장식, 그리고 의상으로 최대한 눈부시게 표현한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프리어 갤러리 소장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상반신 부분.

그림②. 지장보살이 지옥문을 여는 '금석주장(육환장)'를 들고 있다. 이는 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상징한다. 또한 삭발한 승려로 나투는 것도 중생의 방편 교화를 위해서다.

지장보살만의 특징인 삭발모습
"聲聞 모습 나툰다" 경전 근거
중생 눈높이 맞춰 나툼을 의미
육환장도 六道 중생 구제 상징

'스님' 모습의 지장보살, 어째서?

그런데 지장보살은 삭발 머리에 단출한 차림새이다. 그래서 다양한 보살 형상 중에 가장 구분하기가 쉽다. 종종 삭발한 머리에 손수건 같은 천으로 두건을 쓰는 경우가 있어, '두건 지장' 또는 '피건 지장'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민머리가 기본이다. 그러면 지장보살은 왜 삭발한 모습일까? 특이한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왜 다른 보살처럼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습은 "지장보살은 성문(聲聞)의 모습으로 몸을 나투신다"라고 경전 내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성문이란 승려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스님의 모습으로 몸을 나투신다는 것이다. 왜 보살의 모습이 아니라 승려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생의 눈높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根機)'를 말한다. 중생의 수준에서는 보살을 볼 수 없다. 중생의 낮은 근기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 여기에 여여(如如)하게 존재하건만, 중생은 자신의 업장에 가려 보지 못한다. 그렇기에 중생이 볼 수 있도록 스님의 모습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 교화'의 핵심이다.

불교에서는 중생구제 또는 중생교화의 핵심 원리로 '방편(方便)'을 내세운다. 방편이란 '편리한 방법'을 통해, 어린아이 같은 중생의 마음을 해탈로 이끈다는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어 달래야지, 그 앞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의 현재 상태와 수준에 맞춘 맞춤 교육이다.

이러한 방편의 교화는 많은 대승경전에 나타난다. 보살의 무한한 인내와 자비, 분신 · 화신 · 응신 등의 신통으로 나타난다. 그 내용을 보면 실로 가공할 만한 예술의 경지이다. 지장보살은 무수한 '성문(승려)의 분신' 모습으로, 자증(慈增)보살은 '아귀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의 모습으로, 중생 각각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타나 그를 구제한다.

'눈높이 교육', 방편 교화의 핵심

이러한 신통력은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투철한 자비 정신에서 나온다. 응신(또는 화신)이란 수승한 보살도(菩薩道)의 경지에서 부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사심을 빼고, 그저 온건히 상대만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 따뜻한 배려 한 번만 해도 '그 순간 보살이다'라고 대승불교는 말한다. 대승불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주는 마음'인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힘든 게 아니다. 그저 '사심 없이 지금 당장 마음내라'라는 것이다.

〈지장경〉의 '도리천궁에서의 신통(제1품)'에는 "지장보살이 어떻게 불가사의한 신통으로 저 많은 중생들을 구했으며 또 현재에도 구하고 있는지" 묻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부처님은 그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짓고 원(願)을 세웠는지 말해준다. '원(願)'이란 서원의 줄임말로, 쉽게 표현하면 인생 목표를 말한다. 그는 전생에 큰 장자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바라문의 딸이기도 했다. 항상 수승한 조건으로 태어나지만, 인생 목표를 무조건 중생구제로 정하고, 일생을 중생구제에 헌신하기를 수십 수 겁의 생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 무량한 공덕으로, 악업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악업을 지은 '삼악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갖추게 되었다.

'분신' 신통의 원조, 지장보살

그 신통력 중에 하나가 분신법이다.

"중생의 무리는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한다. 때로는 남자의 몸으로 때로는 여자의 몸으로, 때로는 천룡의 몸으로 때로는 귀신의 몸으로 나타난다. 산, 숲, 강, 연못, 우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한다. (중략)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죄업의 과보로 고통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힘든 중생을 제도 하느니라.(제2품 분신집회품 中)"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백천만 억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 만억의 몸을 나투어 한 분신이 백천만 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귀의케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을 맛보게 하겠나이다"라고 서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서유기 소설에 나오는 손오공이 부리는 신통 중 하나가 분신법이다. 자신의 머리칼을 하나 뽑아 "후~"하고 불면 수십 수만 구의 손오공 분신이 나타나 적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분신법의 원조가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모든 지옥마다 분신을 보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양한 지옥의 풍경을 그린 〈지장시왕도〉는 총 10폭의 화폭으로 구성되는데, 화폭 속의 지옥마다 지장이 등장한다. 마치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지장시왕도를 친견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지장보살의 작은 분신을 찾아보기 바란다. 어김없이, 아비지옥에서 화탕지옥까지 지장보살의 분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장보살의 모습은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이다. 민머리에 가사 장삼을 걸치고, 화려한 장신구는 생략했다. '악업 중생은 내게 맡겨라'라는 그의 당당한 포부. "미륵불이 미래에 출현할 때까지 육도(六道: 천, 인,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 후 성불하겠다"라고 커다란 서원을 세웠기에, 지장보살은 '대원본존(大願本尊)' 지장보살로 통한다.

이렇게 천계에서 지옥계에 이르기까지 육도(여섯 개의 세상)를 분주히 다 넘나들며, 물밀 듯 밀려드는 악업 중생을 구하자면 너무 바쁘다. 특히 그가 강조한 삼악도에 떨어진 일체중생을 모두 건져내려면, 높은 보관에 화려한 장식의 차림새로는 무리겠다. 거추장스런 복장이 아닌 간단하고 날렵한 의관에 민머리를 갖춘 스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해가 간다. 물론 중생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수승한 존재의 상한치가 스님이기에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지장, 악업중생 담당 전문 보살

그래서 간단한 차림새에 자신의 분신까지 만들게 되었다. 〈지장시왕도〉를 보면, 지옥의 형벌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하랴, 죄지은 중생들 변호하랴, 염라대왕을 설득하느라 참으로 분주한 지장보살의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옥계와 인간계에서 가장 악독한 업을 짓는 중생들을 담당하기에, 지장보살은 '유명교주(幽冥教主)' 또는 '남방화주(南方化主)'로 지칭되기도 한다. '유명'이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인 저승을 말하고, '남방'이란 남염부제를 지칭하여, 중생이 사는 인간계를 말한다. 저승과 현실의 악업 중생을 전담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악업 중생 앞에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우리 앞에 계신 스님 중에 그 누가 지장보살의 분신일지 모른다. 아니, 스님들은 모두 지장보살의 분신이라 할 수 있겠다.

지장보살은 '금석장과 여의주'를 그 대표적 지물로 가지고 있다. 붉은 보석이 알알이 박힌 금석장(그림②)을 어깨에 걸치고 석장 대를 왼손으로 살짝 잡아 바치고 있다. 여섯 개의 둥근 고리가 달려있어 '육환장'이라고도 하는데, 여섯 개의 고리는 육도(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세상)를 상징한다. 석장은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아비지옥의 문까지 열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다.

"자비스러운 인으로 선근을 쌓아 맹세코 중생을 구제해내는 (지장보살이) 손 가운데 가진 금석주장을 떨치면 지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의 광명은 널리 대천세계를 비추나니(〈지장경계청〉)"라고 쓰여 있어, 석장과 여의주의 기능을 명료히 알 수 있다. 지장보살은 석장을 떨쳐서 악업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단박에 열어 준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혜원사
• 주 지 : 혜명 (속명 : 김영범)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47번길 10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